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66호 【루게 제24479호】 주제 103 (2014)년 3월 7일 (금요일)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 오중흙 7련대칭호를 수여받은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제2620군부대의 비행훈련을 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 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오중흙 7련대칭호를 수여받은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제2620군부대의 비행훈련을 지도하시였다.

최룡해 동지, 장정남 동지, 윤동현 동지, 리병철 동지, 박정천 동지, 한광상 동지, 황병서 동지, 홍영철 동지, 마원춘 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를 군부대의 지휘관들이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는 군부대 비행사들의 비행훈련을 지도하시였다.

조선인민의 철천지원수인 미제침략자들과 그 추종세력들에 대한 천백배의 증오와 보복의 의지가 차넘치는 군부대에는 원수들이 감히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털끝만큼이라도 해치려한다면 적들의 아성을 재더미로 만들어버릴 멸적의 기상이 용암마냥 끓어번지고있었다.

훈련이 시작되자 조종간을 역세계 틀어잡고 하늘로 날아오른 비행사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의 훈련명령판철의 길에서 편마해온 자기들의 비행술을 남김없이 보여주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찬바람이 불어치는 훈련장에 오래도록 서시어 수령결사옹위, 조국수호의 항로에 비행운을 새겨가고있는 비행사들의 훈련을 주의 깊게 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훈련에 참가한 비행사들이 모두 여성들인데 불리한 기상조건속에서도 전투동작들을 훌륭히 수행한다고, 사상정신상태가 대단히



히 좋다고, 당의 의도대로 높은 비행술을 소유하였다고 치하하시였다.

여성비행사들을 만나주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고도의 격동상태에서 비행훈련을 힘있게 벌려 하늘의 유능한 전투비행사로 준비되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훈련성과를 축하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사회주의 조국의 신성한 영공을 금성철벽으로 지켜가고있는 미더운 비행사들이 있기에 조국의 하늘은 언제나 맑고 푸를것이라고 하시면서 비행훈련을 더욱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군부대가 만단의 전투동원준비를 철저히

갖추고있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고 군부대군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는 비행훈련지도를 마치신 다음 군부대를 시찰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먼저 혁명사적교양실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여성비행사들로 군부대를 조직해 주시였으며 위대한 장군님께서 뜨거운 사랑과 깊은 관심을 돌려주신 이 부대는 나라의 항공무력발전과 더불어 자랑찬 위훈을 새겨왔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현명한 령도의 손길아래 역세게 자라난 여성비행사들을 가지고있는것은 우리 당의 자랑이라고 하시면서 <여성비행사의 노래>를 창작하여 부름데 대한 뜨거운 응정을 베풀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비행사들의 침실, 비행조종원승중합강실, 식당, 부식물창고를 비롯한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비행사들과 군인들의 생활을 세심히 보살펴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군부대에서 정치사상교양과 문화정서생활 및 후방시설들을 그쯘히 갖추어놓고 군인들에게 훌륭한 생활조건을 마련해 주고있는데 대하여 기쁨을 표시하시였다.

라는 최상의 믿음을 안겨주시고 그들과 함께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는 군부대의 군인들이 사회주의 조국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서 빛나는 군공을 세워가리라 크나큰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조선인민군 제2620군부대의 전체 군인들은 자기들의 초소에 찾아오시어 한없는 은덕을 베풀어주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에 대한 고마움에 눈시울을 적시면서 싸움준비와 전투력강화에 더 큰 비약의 박차를 가함으로써 사회주의 조국의 푸른 하늘을 목숨바쳐 사수할 불같은 결의를 다지였다.

본사정치보도반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인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석에게 축전을 보내시였다

비엔티안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석

썬 말 리 싸 이 나 쏜 동 지

나는 당신의 생일 78돛에 즈음하여 열렬한 축하와 뜨거운 동지적인사를 보냅니다. 오늘 라오스인민은 당신을 수반으로 하는 라오스인민혁명당의 훌륭한 령도밑에 혁명의 전위물을 수호하고 인민민주주의 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당 제9차대회결정판철을 위한 투쟁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있습니다. 나는 공동의 사회주의리념에 기초하여 맺어지고 발전하여온 우리 두 나라 당과 국가, 인민들사이의 전통적인 친선협조 관계가 선대수령들의 념원에 맞게 더욱 공고발전되리라고 확신하면서 당신이 건강하고 행복할것과 책임적인 사업에서 보다는 성과를 거둘것을 중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김 정 은

주제 103(2014)년 3월 6일

평 양

사상의 위력으로 전진하는 조선

국 제 사 회 계 가 경 란

위대한 수령, 위대한 령도자의 혁명사상을 필승의 무기로 틀어쥐고 그 위력으로 력사의 만단을 이겨내며 승리와 영광을 펼쳐온 우리 공화국의 빛나는 행로에 대하여 국제사회는 경탄을 금치 못하고있다. 로씨야 김정은 동지로서작연구 보급추진회의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불패의 힘은 주제 사상, 선군사상으로 무장한 군대와 인민의 정신력에 뿌리를 두고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조선은 그 무엇으로써도 무너뜨릴수 없다고 성명하였다. 라오스신문 <행안>은 조선의 정치사상적위력은 그 어느 나라와도 대비할수 없다고 하면서 령도자와 천만군민이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뭉친 일심단결은 조선에만 고유한것이라고 서술하였다. 이따리아평화와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 조직비서는 조선이 것처럼 엄혹한 속에서도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를 확고히 고수하면서 경제강국건설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고있는 비결은 김정은 동지께서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시고 혁명파 건설을 령도하시였기때문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김일성주석의 혁명사상을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로 정식화하시고 사상중시의 정치로 조선을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으로 일떠세우시였다. 나이제리아자력쟁쟁연구소 조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수십년간 조선인민을 이끄시면서 단 한번의 실패와 좌절, 탈선도 없이 성공적인 정치를 펼치시였다. 그의 정치철학은 국제사회가 인류자주위업의 지도사상으로 공인하는 주제사상이다. 본사기자

전국의 모든 선거분구들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후보자들 공시

【평양 3월 6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각급 인민회의의 대의원선거에 따라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선거를 위한 분구별 선거후보자들이 공시하였다. 한편 전국의 모든 선거구들에 선거장 등록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후보자들이 꾸려졌다.

이런 여성들이 우리의 사회주의를 지킨다

선군시대 공로자의 영예를 지닌 국가과학원혁명사적관 준중교양과장 한화숙동무

지난 1월 14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국가과학원을 현지지도하시면서 혁명사적관 준중교양과장 한화숙동무에게 베풀어주시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은정과학자구는 물론 온 나라의 혁명사적강사들을 감동시키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에게는 앞에서 보나 뒤에서 보나 옆에서 보나 다 한모습이고 순탄한 길을 걸을 때도 시련에 찬 길을 걸을 때도 언제나 한모습인 그런 충신이 필요합니다.》

그날 한화숙동무의 해설을 들이고서 치하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그의 남편은 특유영예군인으로서 열공학연구소

연구사로 일하고있고 아들은 생물공학분원 연구사로서 지금 세포지구 축산기건설 전투장에 탄원해나가고 일을 잘하고있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못내 기뻐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33년 동안 강사생활을 하면서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모실 날만 기다리며 한생을 바쳐온 한화숙동무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고 높이 평가하시면서 그와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당에서 선군시대 공로자로 내세워준 한화숙동무의 인생은 우리 사회에서 어떤 여성이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여성이며 그런 값높은 삶의 절정에 오르지않아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훌륭한 대담을 주고있다.

영광의 그날, 그는 바로 이 물음에 심장으로 대답하였다.

《처음에는 우리 수령님 오실까 하고 기다리고 그다음엔 우리 장군님 오실까 하고 기다렸는데 오늘 수령님, 장군님 사랑 다 안으시고 원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발자취 어려웠던 곳에 한생의 초소를 정하고 향심과 의리의 길을 묵묵히 걷는 이 나라 혁명사적강사들에게 있어서 한결같은 소원은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단 한번만이라도 해설을 해드리는데 있었다.

언제면 오실까 기다리기에 앞서 우리 원수님앞에서 내가 한 일을 뭣뭣이 총화지 쓸수 있는 자격을 먼저 갖추자, 이것은 한화숙동무가 오늘까지 간직하고 살아온 남다른 지론이었다.

하기에 그는 강의할때 앞서 신입강사들에게 늘 이렇게 강조하곤 하였다.

— 위대한 장군님께서 현지지도의 길에서 제일먼저 찾으신 곳은 어디였던가, 바로 우리 혁명사적강사들이 일하는 초소였다. 언제 어느때나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강의를 하고는 생각하라!

한화숙동무의 앞가슴에 박사대말은 없다. 높은 학위학직도 없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에서 우리 당의 과학기술시사상을 더 깊이 새겨안으며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을 떠메고 힘찬한 초행길을 걸어가신 영예군인의 안해이다

을 헤쳐온 과학자, 연구사들은 이 자그마한 녀인을 잊지 않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국가과학원 혁명사적관에 전시되어있는 사적자료들은 국보중의 국보들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우리 혁명의 명줄인 혁명정신을 지키고 선진하며 한생을 바쳐온 여성강사의 공적을 어찌 위성을 쫓을런 영웅이나 미지의 과학세계를 개척한 박사의 공로와 나란히 놓지 않을수 있오라.

당에서는 혁명사적강사로 한생을 성실하게 책임적으로, 헌신적으로 일해온 한화숙동무에게 공훈사적강사의 영예를 안겨주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그를 사랑의 품에 안아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으시 온 나라가 아는 선군시대공로자로 보란듯이 내세워주시였다.

소박한 여성혁명사적강사의 꾸밈없는 이태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33년 세월 위대한 수령님들 장군님들 마음속에 모시고 강의를 해 온 그의 리듬은 충정의 세계를 안아보시였다.

얼마전 그는 우리 당력사에서 가장 성대하고 의의깊게 진행된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대대회에 참가하였다.

이런 여성들이 백두산으로부터 분계연선 마을까지, 공작과 농촌 그 어디서나 삶의 뿌리를 내리고 우리 당의 정치사상진지를 지켜신 전조병으로 살고있다.

열었다.

영예군인의 안해라고 저저마다 앞자리에 세워주는 과학자 아주머니들의 손과 손에 떠밀려 먼 선창으로 무겁게 쌀을 받아 안는 그의 어깨는 세차게 오르내렸다.

(얼마나 따사롭고 자애로운 품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고 보살펴주고있는가!)

남편의 앞가슴에 혼자들이 빛나고 발명중서들과 과학기술성적과도입증들이 늘어났다. 그의 출생일은 더욱 잦아졌다. 메탄가스화실현을 위해 농촌에 나갔다가 돌아올 때면 그의 가방은 항상 무거웠다.

《아버지, 맛있는거냐?》하고 아이들이 가방에 매달릴 때면 조영동무는 말했다.

《실형자라도.》

가방속에 차곡차곡 쌓인 비닐봉지들에는 여러 농촌마을에서 구해온 각종 집집승 배설물들이 들어있었다.

《못 하나라도 바깥 힘들어하는 그 몸이 꼭 이렇게 메고다녀야 하겠어요?》 물라보게 수척해진 남편을 바라보는 한화숙동무의 걱정은 커만 갔다.

간절히 부탁하였다.

《수많은 참관자들이 기다린다. 어서!》

《어머니, 내 생활에서 제일 기쁜 날이 언제일까요? 집에 문열고 들어왔을 때 어머니신발이 있는 날이예요. 이 딸의 소박한 소원이 풀어줄수 없나요? 특유영예군인의 안해인 어머니가 강사를 그만두고 좀 훌륭한 직업을 택했다고 누가 탓하지도 않을거예요.》

애원하다싶이 터지는 딸의 하소연에 한화숙동무는 나직이 말을 하였다.

《회피들이 언제인가 아버지에게 물었었지. <학위문제를 왜 안 쓰나요?> 그때 아버지 이렇게 말했다. <난 내가 학위를 받는것보다 우리 딸의 연구사들이 학위를 받는데 더 힘들이 되는것이 더 기쁘다. 당세포에서 자기보다 항상 자기위의 사람들을 먼저 생각할줄 알아야 한다.>》

너희 아버지는 당원들의 앞장에 서야 할 당세포에서이고 이 어머니는 군중의 거울이 되어야 할 강사란다.》

한쪽팔은 아들에게, 다른쪽팔은 딸에게

《 나는 혁명사적강사입니다 》

한화숙동무의 첫 강사생활은 30여년전 신포혁명사적관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처녀시절 그의 강사생활에 가장 잊을수 없는 추억을 남겼것은 원양선단에서 이동강의를 할 때였다.

만경창과우의 어신에도 혁명사적강사가 서야 할 교양마당이 있다는 사실은 그를 놀라고도 자랑스럽게 해주었다.

멀리 오호츠크해까지 다녀온 그 몇달동안에 그는 수백명 어로공들이 누구나 사랑하는 우리 강사선생님이 되었다.

심한 배멀미에 열흘까지 토하면서 강 의시간만은 번지지 않는 이악한 강사, 사나운 파도와 싸우며 만선의 배고동소리 울려가는 어로공들에게 힘과 노래가 되어주는 처녀는 작업선마다에서 제일 기다리는 사람이였다. 우리 나라 수산업발전에 깃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어로공들은 그의 목소리에서 수령님의 로고를 잊지 말라는 조국의 목소리, 당의 목소리를 들었으며 내 나라를 위해서 1t의 물고기라도 더 잡을것을 맹세하였다.

그때서 어로공들은 자기들이 잡은 물고기의 절반은 강사선생님이 잡은것이라고 이구동성으로 진심을 피웠다.

민바다에서 돌아오는 날 한화숙동무를 남뻘이 맞아준것은 아버지였다. 아버지는 대학을 졸업하고 혁명사적강사가 될 결심을 한 딸을 선창으로 지지해주고 떠날이준 전정로병이며 제대군인이였다. 몇달동안에 물라보게 성장한 딸의 모습에 그의 눈에 못내 대견하게 안겨들었다.

《힘들지?》

《힘들어요. 하지만 보람차요.》

해풍에 씻겨워 더욱 익세여진듯 한 딸을 바라보며 아버지는 말했다.

《강사가 하는 일은 부지배인인 이 아버지 하는 일보다 더 크고 중요하지.》

달뻘은 받았다. 강사생활을 시작할 때 아버지가 마련해주었던 치마저고리에 새 동정을 대는 그의 눈가에는 벽에 걸린 아버지의 군복, 그 군복의 눈금이 하얀 목달개개 새삼스럽게 비껴들었다.

《강사는 한생을 만사람앞에 서있어야 한다. 그래서 강사는 외모도 마음도 누구보다 깨끗해야 하며 바람이 불고 눈보라쳐도 항상 곧은 길을 걸어야 한다.》

(아버지말이 옳아. 강사생활은 조국을 위한 군사부녀자 같애. 내 한생 강사로 살리라!)

그때로부터 여러해가 지나 한화숙동무는 과학자인 남편을 따라 국가과학원에 새 일터를 정하게 되었다.

정든 일터는 멀어지고 초소는 달라졌어도 조선로동당원인 그의 가슴속에서는 항상 입당청원서의 글줄들이 력력히 살아 숨쉬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혁명사적강사로 내세워 주신 그 믿음을 심장에 간직하고... 한생도록 혁명사적강사의 책임과 본분을 다하겠습니다.》

당에서는 그에게 또다시 혁명사적강사의 고귀한 직무를 맡겨주었다.

국가과학원에 혁명사적관이 개관되던 날 누구보다 많은 길을 걸으며 땀을 흘린 것은 한화숙동무였다.

수산부문에 대한 파악이 전부였던 그가 이제는 과학의 모든 분야에 대하여 알아하였다. 더우기 그는 과학자들앞에서 과학을 해설해야 하였다.

45살에 《학성》이 된 그는 국가과학원

의 각 연구소들을 찾아가 강의를 받기 시작했다. 수학, 조종기계, 전자공학, 재료, 기계, 환경공학, 열공학...

강의를 받을 때면 다 알것 같다가도 돌아서면 감잡해졌다. 그러면 그는 걸어왔던 길을 되돌아갔다.

《선생님, 몰라서 또 왔습니다. 다시 설명 해주십시오.》

그는 모든것이 완전히 파악될 때까지 생안하거나 실험하는것을 직접 보면서 강의의 글줄들을 완성해나갔다.

온 가족이 오레간만에 저녁상을 함께 한 어느날이였다.

《원철아, 생물공학부문 공부는 정말 힘에 부치지나.》

국가과학원 생물공학분원 연구사인 아들에게 화숙동무가 하는 말이였다.

《무슨 문제인데요? 내가 아는것 설명해 드리지요.》

의사인 딸도 뒤지려고 하지 않았다. 남편은 남편대로 오레 과학자의 안목으로 조언을 주었다. 이렇게 밥상을 마주하고 벌어진 론쟁은 밤이 깊어져야 끝났다. 딸이 가정의 열기면 론쟁을 결국하였다.

《어머니, 강사는 어디까지 알아야 하나요?》

참관자들의 물음에 한가지라도 대답을 할수 없다면 잡들지 못하던 어머니였던것이였다.

《강사는 사적자료를 외워주는 전달자가 아니라 배이면 백, 천이면 천사람의 심금을 다 울려주는 군중의 교양자가 되어야 한다.》

준비정도가 서로 다른 수많은 참관자들이 쉽게 리해할수 있는 통속적이면서도 과학적인 강의안은 이렇게 하나하나 마련되어 갔다.

하나의 사적물을 놓고도 백두산위인들의 위대성, 투쟁정신을 참관자들의 심장마다에 심어주기 위해 온갖을 바치는 그의 피라는 노력에 받들려 방대한 분야의 수많은 사적물들에 대한 강의안들이 폭넓고 깊있게, 손색없이 완성되게 되었다. 그 나날에 과학자의 기의 모든 과학자, 연구사들은 그의 선생님이 되고 방조자가 되었으며 그는 과학자보다 더 많이 아는 《과학자》가 되었다.

적지 않은 여성들이 한가정의 살림을 먼저 걱정하면서 때로 일터를 비우던 고난의 행군시기에도 자기의 혁명초소를 지켜신 한화숙동무의 자세는 조금도 형용어지지 않았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늘 단정찬 차와 저고리차림으로 지시봉을 들고 밝은 얼굴로 참관자들을 마중하는 혁명사적강사의 변함없는 한모습, 한목소리에서 과학자들은 시대의 부름을 들으며 탐구의 머나먼 길을 떠나갔고 과학자의 안해들은 남편의 연구사업에 고인물이 되어주었다.

언제인가 대학을 갓 졸업하고 강사로 배치된 한 처녀가 이렇게 물은적이 있었다.

《파장동지, 왜 한생 강사로 삼니까?》

한화숙동무는 빙그레 웃음만 지었다. 그때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런 물음이 저절로 떠올랐다.

(만약 한생을 바쳐 과학탐구의 길을 걷고있는 로학자에게 선생님은 왜 한생을 과학에 바치니까라고 물어보면 무엇이라고 대답할까?)

어이하여 그는 한생을 혁명사적강사로 살아왔던가.

경애하는 원수님을 물가까지 모셨던

그는 영예군인의 안해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선군시대공로자인 한화숙동무에게 보내주신 글만지를 싹고 또 싹어보는 남편 조영동무의 눈시울은 희락 젖어있었다.

(안해에게 난 60이 되어오도록 아무것도 해준것이 없는데...)

숫자지는 고마움에 날이 밝도록 잠들지 못하는 그의 어깨에 안해의 손이 살며시 얹혀졌다.

《우리 원수님께서 아시는 강사를 안해로 둔 난 정말 행복한 사람이요.》

안해의 희여진 귀뿔머리를 어루스르는 남편의 정겨운 눈빛을 바라보는 한화숙동무에게는 일생을 약속하던 그날의 추억이 즐겁게 되새겨졌다. ...

평생에서부터 신포까지 밤새 기차를 타고 달려온 총각을 마주한 처녀의 가슴은 날뛰었다. 그러나 늘 수많은 사람들이앞에 무렵잡이 나서던 강사인지라 처녀는 인차 씩씩해졌다.

《우리 아버지가 그러는데 동지는 영예군인증은 없지만 영예군인과 같은 사람이라고 하더군요.》

《영예군인이라고 일생을 같이할수 있습니까?》

방랑적인 처녀는 총각의 진중찬 물음을 툭툭도 받아들었다. 서둘러 부역으로 들어선 그는 쌀함박을 든 남편과 부딪쳤다. 물거어진 그의 눈을 이윽도록 들여다 보던 남편이 안해를 꼭 껴안았다.

《당신이 성한 사람과 살았다면 이렇게 고생했겠소. 제발 몸을 돌보며 일하고. 당신이 강의를 버리고 못산다는거야 내가 잘 알지.》

창조와 정열의 대불이 되어준 안해의 헌신속에 남편은 대한 조영동무의 애착은 나날이 열렬해졌다.

이제 금방 국가과학원을 배우기 시작한 어린 딸의 발그릇에 대용식품을 담아주지 않으면 안되던 시련의 시기였다.

당장 도입지로 떠나야 할 남편을 위해 겨우 한푼이 되는 밥을 지어놓고 잠시 집을 나섰던 한화숙동무는 방에 들어서자마자 눈앞이 어둡해졌다. 그 한푼이었던 젤반나마 움푹 패어있었던것이다. 지도 모르게 발공기를 불산은 그의 눈가에서는 눈물이 쏟아져내렸다. 그러는 어머니를 한동안 바라 보던 아들이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 이다음 크면 난 꼭 나무마다 땀이 달리게 하는 과학자가 되겠어요.》

배고픔과는 타협 못하는 칠부어린것의 딸이 그의 가슴을 아프게 하였다.

《원철아, 우린 풀죽을 먹어도 아버지에게만은 꼭 밥을 드려야 한다. 아버지 쓰러져선 안될 사람이야.》

그날 려차에 오른 조영동무의 가방안에는 여느때처럼 따끈한 밥이 들어있었다. 그 밥 한덩이가 어떻게 마련되었건지는 알수 없었지만 조영동무의 눈앞에는 허리뭉클 더 조이고 애써 웃음을 지으며 참관자들을 맞이하고있을 안해의 얼굴이 떠올라 목이 짙 메여올랐다.

바로 그 시각 국가과학원 당위원회에서는 《특유영예군인 조영동무의 생활을 잘 돌봐줄 데 대하여》라는 토의안건으로 당결정이 채택되고있었다. 국가과학원과 연구소의 책임인근들은 바뀌어도 위하는 마음은 변함없었고 영예군인가정을 위해 바치는 사랑은 뜨거워만갔다.

과학자의 안해인 그가 받아안은 걱정은 이 에만 그치지 않았다.

국가과학원 과학자들에게만은 식량을 공급해줄데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은정어린 조치가 취해졌던것이다.

오래 동안 단절된 식량공급소의 문이

말릴새없이 또 다른 일감을 잡는 안해를 이윽도록 지켜보던 남편의 여성이 별안간 높아졌다.

《여보, 강사는 강철로 빛어진 사람이요?》

어느때없는 남편의 언행에 한화숙동무는 깜짝 놀랐다.

《12시가 넘었소. 그런데 당신은 아직 저녁전이지. 그러구 또 이제 강의안도 써야겠지. 아이들은 엄마를 기다리다 밥도 못먹고 지쳐 잠들었소. 일이 기쁜이요, 사람이 기쁜이요?》

불시에 눈물이 핑 돌았다. 남편에 대한 고마움보다 먼저 안해구실을 다하지 못한 자식에 대한 죄책감에 그는 남편을 마주볼수가 없었다.

그는 옥색의 한 부분을 이미 조국에 바친 영예군인이였다. 하나의 발걸음 위해 한생을 다 바쳐도 모자랄수 있는 과학탐구의 길에 두번다시 바칠 징장을 안고 용약 뛰어든 영예군인과학자였다.

(조국에 한 영예군인을 나에게 맡겨주지 않았단가! 내 사랑이 모자랐구나.)

그는 오래도록 잠들수가 없었다.

다음날 이른아침이었다. 서둘러 부역으로 들어선 그는 쌀함박을 든 남편과 부딪쳤다. 물거어진 그의 눈을 이윽도록 들여다 보던 남편이 안해를 꼭 껴안았다.

《당신이 성한 사람과 살았다면 이렇게 고생했겠소. 제발 몸을 돌보며 일하고. 당신이 강의를 버리고 못산다는거야 내가 잘 알지.》

창조와 정열의 대불이 되어준 안해의 헌신속에 남편은 대한 조영동무의 애착은 나날이 열렬해졌다.

이제 금방 국가과학원을 배우기 시작한 어린 딸의 발그릇에 대용식품을 담아주지 않으면 안되던 시련의 시기였다.

당장 도입지로 떠나야 할 남편을 위해 겨우 한푼이 되는 밥을 지어놓고 잠시 집을 나섰던 한화숙동무는 방에 들어서자마자 눈앞이 어둡해졌다. 그 한푼이었던 젤반나마 움푹 패어있었던것이다. 지도 모르게 발공기를 불산은 그의 눈가에서는 눈물이 쏟아져내렸다. 그러는 어머니를 한동안 바라 보던 아들이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 이다음 크면 난 꼭 나무마다 땀이 달리게 하는 과학자가 되겠어요.》

배고픔과는 타협 못하는 칠부어린것의 딸이 그의 가슴을 아프게 하였다.

《원철아, 우린 풀죽을 먹어도 아버지에게만은 꼭 밥을 드려야 한다. 아버지 쓰러져선 안될 사람이야.》

그날 려차에 오른 조영동무의 가방안에는 여느때처럼 따끈한 밥이 들어있었다. 그 밥 한덩이가 어떻게 마련되었건지는 알수 없었지만 조영동무의 눈앞에는 허리뭉클 더 조이고 애써 웃음을 지으며 참관자들을 맞이하고있을 안해의 얼굴이 떠올라 목이 짙 메여올랐다.

《집의 쌀독은 비어도 당신이 출근부에 수료를 비우지 못한것처럼 나도 마찬가지로.》

낮에는 실험을 거듭하고 밤에는 초콜릿에서 실험을 거듭하고 정리를 정리하며 또다시 먼길을 걸어 《실형자라도》를 안고 돌아오던 어느날 비내리는 밤 조영동무는 끝내 쓰러졌다.

군기앞에서 엄숙히 다진 병사의 맹세를 지켜 순간도 병든몸을 풀지 않고 달려던 영예군인의 생은 점점 기울어졌다. 사실 그는 시간탄을 몸에 안고 사는 사람과 다름없었던것이다.

《...요즈음 난 자주 내 생을 계산해보오. 정말 여름밤의 하루살이처럼 흔적없이 사라질까봐 두렵소.》

한화숙동무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다. (당신은 생을 포기할 권리가 없어요!)

초콜릿만 자기 몸을 장기로 태워서라도 영예군인 남편을 반드시 초소에 다시 세워 주려는 그의 지성은 참으로 지극한것이였다.

이듬새벽 이슬길을 헤쳐 약초를 채취했고 휴식일이 따로없이 산밭을 누비며 귀한 약재들과 산열매들을 채집했다. 그렇게 그는 하루와 같이 체운으로 약을 정성껏 달여 남편의 입에 떠넣어주었다. 어디서나, 어느때나 우선권을 가진 영예군인의 건강문제는 국가과학원의 최대관심사로 되었다.

죽음의 문턱에서 헤매이던 그를 기적적으로 되돌려세운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보내주신 진귀한 보약들이였다. 해를 이가며 보내주시는 그 귀한 약 한가지만 가지는 소생의 불씨가 되어 꺼져가던 특유영예군인의 생명에 다시 불길을 지켜 주었다.

그 사랑에 떠날때를 한화숙동무는 영예군인과학자 남편과 나란히 다시 정들은 출근길에 나섰다. 보양의 길에 손잡고 함께 나선 그들부부의 사랑은 더욱 열렬해졌다.

우리 사회에서 영예군인의 안해는 가장 훌륭하고 아름다운 여성으로 존경받는다. 영예군인의 안해, 그 부름 하나만으로도 우리 시대에 살 권리가 누구보다 뚜렷하였다. 한화숙동무는 혁명사적강사로 수직선을 일해왔다는 공적만으로도 사회앞에 당당히 나설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남보다 몇푼이나 더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우리 당을 따라 누구나 선뜻 걸을수 없는 길에 헌신의 뜻을 수놓아 되어야 한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 녀인들의 뒀은 가정과 일터에 대한 하나의 뜨거운 사랑으로 그 기동들을 흔들림없이 받쳐주는 주부로서, 공민으로서 용감한 사랑의 의무라고 생각했으며 당과 혁명을 위하여 당원으로서, 전정로병의 딸로서 마땅한 향심의 의무라고 여겼다.

국가과학원에 혁명사적관을 개관한 때로부터 몇달이 지나서였다.

앞에는 수많은 참관자들을 도맡아 강의를 하고 강의후에는 신입강사들의 강의를 지도하고 밤을 새우던 어느날 그는 팔내의식을 잃었다.

그가 가까스로 정신을 차렸을 때는 다음날 아침이었다. 일어나보려고 모지뚝했으나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윤영아, 침을 좀 놔주렴.》

차마 침을 빼여들지 못하는 딸에게 그는

말고도 안간힘을 다해 사적관에 다달은 그는 평온한 얼굴에 미소를 짓고 강의를 해 나갔다. 긴정 그는 참관자들에게만이 아닌 가정에서도 한목소리, 한모습으로 살아온 훌륭한 강사였다.

하기에 국가과학원 생물공학분원 연구사인 아들 조원철동무는 세포지구 축산기건설장에 탄원해가던 날 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

《어머니는 저와 함께 나무만 심지 않았습니다. 애꾸하는 마음도 함께 가꾸어주었습니다.》

이 훌륭한 영예군인과학자 가정도 우리의 사회주의대가정의 넓고 따뜻한 품속에 안겨있었다. 그 품에 제 4차 전격어머니 대회의 높은 연단에서 영예군인의 안해의 앞가슴에 혼장을 달아준, 조선로동당 제 4차 세포비서대회에 영예군인과학자 불려 영광의 기념사진을 한생의 가보로 남겨준 고마운 어머니당과 조국의 품이였다.

어머니의 사랑과 손길로 영예군인과학자 가정의 뒤바라기를 해온 당의 품속에서 한화숙동무는 오늘 온 나라가 부러워하는 혁명사적강사, 금반지의 주인공으로 만사람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몇몇한 여성이 되어야 자기 령도자를 기다릴 자격이 있다 고 생각했기에 그는 한생 변함없이 영광의 길을 마중잡고 있었다.

가정에 대한 사랑과 일터에 대한 사랑이 하나로 합쳐질 때 그것은 가장 아름답고 찬다운 조국에 대한 사랑, 혁명에 대한 사랑으로 폭발된다. 혁명을 위해서 바치는 사랑이나 가정을 위해서 바치는 사랑은 따로 있지 않다. 그것은 하나이다.

이것을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한모습, 한목소리로 살며 당의 뜻을 받들어 가정도 사회도 아름답게 가꾼 훌륭한 여성혁명가 한화숙동무의 삶이 뚜렷이 실증해주고 있다.

* * *

녀성이 가정과 사회에서 차지하는 지위는 대단히 중요하다.

그녀 훌륭한 어머니라면 그 어머니안에는 훌륭한 자식들이 있을것이며 그가 훌륭한 안해이라면 그 남편은 가정과 일터에서 떠날줄이 없는 훌륭한 본보기가 될것이다. 그가 훌륭한 여성이라면 그는 누구나 사랑하고 신망하는 사회의 꽃, 나라의 일꾼이 될것이다.

조국속에 가정과 일터가 있으며 가정과 일터들은 조국을 떠받치는 역세인 기둥이 되어야 한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 녀인들의 뒀은 가정과 일터에 대한 하나의 뜨거운 사랑으로 그 기동들을 흔들림없이 받쳐주는 주부로서, 공민으로서 용감한 사랑의 의무라고 생각했으며 당과 혁명을 위하여 당원으로서, 전정로병의 딸로서 마땅한 향심의 의무라고 여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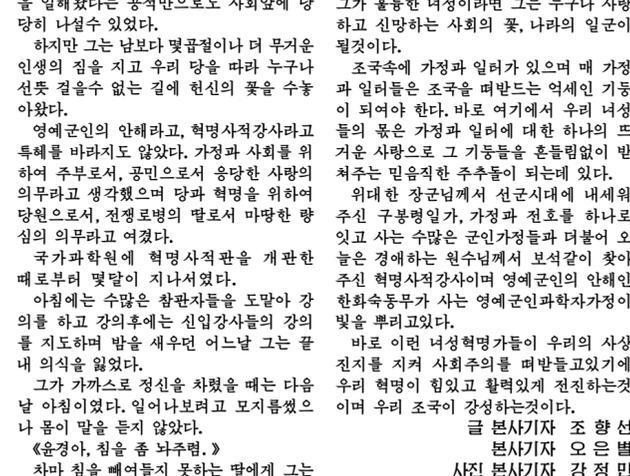
국가과학원에 혁명사적관을 개관한 때로부터 몇달이 지나서였다.

앞에는 수많은 참관자들을 도맡아 강의를 하고 강의후에는 신입강사들의 강의를 지도하고 밤을 새우던 어느날 그는 팔내의식을 잃었다.

그가 가까스로 정신을 차렸을 때는 다음날 아침이었다. 일어나보려고 모지뚝했으나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윤영아, 침을 좀 놔주렴.》

차마 침을 빼여들지 못하는 딸에게 그는



글 분사기자 조 함 선
사진 분사기자 오 은 별
사진 분사기자 강 정 민

미국은 상대가 무적의 핵억제력을 가진 강국이라는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미국의 부당한 간섭은 조국통일의 장애

지금 조선반도에서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있는 속에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 국면을 열려는 거대한 열망은 날로 뜨겁게 분출하고있다. 바로 이러한 때에 미국은 시대의 추세와 우리 민족의 지향에 도전하면서 침략적인 대조선정책에 더욱 악랄하게 매여달리고있다.

북로선과 같이 미제호전광들은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 방대한 침략무력을 투입하면서 남조선당국과 함께 북침성세 공격을 가할만한 도발적인 합동군사연습을 벌이고있다. 뿐만아니라 미국의 고위인물들이 편이어서 북남사이의 대화와 협력을 바라지 않는 저들의 속심을 공명연히 드러내고있다. 최근에는 미 국무장관이 그 무슨 《인연》이니 뭐니 하며 우리 공화국을 전례없이 악랄하게 걸고드는 망발을 쳤다. 이것이 조선반도의 정세변화에 제동을 걸면서 대결상태를 계속 격화시키고 우리 공화국을 한사코 압살하려는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책동이라는것은 더 뽀얀 증거가 없다. 미국의 책동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우리 민족의 투쟁에 커다란 장애를 조성하고있다.

우리 거베는 우리 민족내부문제에 제멋대로 간섭하기를 북과 남을 리간시키고 불신과 대결을 조장하기 위해 발광하는 미국의 반동일책들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미국의 간섭책들은 우리 민족의 자주적권리를 짓밟는 범죄행위이다. 대미 투쟁에겐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개척해나갈 당당한 권리가 있으며 그것은 누구도 침해할 수 없다.

전국적투쟁위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고 잃어버린 민족의 핵력을 잇기 위한 조

국통일은 철저히 우리 민족자신의 문제이다. 누구도 우리 민족의 통일문제에 제멋대로 개입하며 이래라저래라 간섭할 수 없다. 조국통일사업에 대한 외세의 간섭과 방해책동을 물리치고 나라의 통일을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이룩하여야 하는은 온 겨레의 요구이며 의지이다.

미국이 우리 민족의 자주적권리를 무시하고 조국통일문제에 제멋대로 간섭하는것은 엄청난 자주권침해행위로서 허용하지 못하고있다. 미국에 의해 세기기를 내내부문에 간섭할 권리를 준적이 없다. 미국의 간섭책들은 미국의 대조선침략책동때문에 북과 남으로 갈라졌고 그 때로부터 오늘날까지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지 못하고있다. 미국에 의해 세기기를 이어 분열의 고통을 강요당하고있는 우리 겨레는 민족내부문제에 대한 미국의 간섭을 침략책동으로 간주하고있으며 그를 단호히 배격하고있다.

미국이 우리 민족을 분열시킨 사상 최악의 반인륜적범죄행위에 대해 사죄하고 조선반도에서 손을 뗄 것을 우리 민족의 자주적의사와 요구를 무시하며 조국통일문제에 간섭하는것이아말로 지배자의적정행이 아닐수 없다.

미국의 간섭책들은 북과 남의 화해와 단합,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가로막는 기본장이다.

미국의 남조선간섭책들은 그자체가 우리 민족의 내부문제에 합부로서 기여하여 북과 남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가로막은 범죄의 책사이다.

미국은 침략적인 대조선정책으로부터 출발하여 역사적으로 북과 남 사이에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관계개선 기가기 나타날 때마다 심보사냥대 그것을 가로막는 반동일책들을 감행하

였다.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의 채택과 더불어 북남관계가 획기적전진을 이룩하게 되자 그것을 눈에는 가시처럼 여기면서 악랄하게 방해해나선 미국의 책동은 그 대표적절세이다.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을 이룩할것을 확약한 6.15 공동선언의 채택과 리행으로 남조선간섭책들을 상시실사하는 위위급에 사로잡힌 미국은 그 무슨 《위협성》을 내뿜으면서 북남관계를 공동선언표이전의 대결상태로 되돌려세우려고 각박으로 책동하였다. 북남사이의 철도 및 도로건설사업에 그 무슨 《허가》문제를 들고나와 장애를 조성하였으며 북과 경제협력을 계속하는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하면서 제동을 걸었다. 핵문제해결을 운운하며 그의 진척에 맞추어 북남관계개선의 속도를 조절하고 남조선당국을 압박한것도 다름아닌 미국이다.

지금도 미국은 보치며 마련된 북남사이의 관계개선을 위한 투쟁을 막기위해 침략적인 간섭책들을 더욱 로골화하고있다. 미국이 북과 남사이의 휴전협정, 친척상봉이 내외의 판심속에 벌어지고있던 때에 인도적행사와 합동군사연습을 《별개의 일》이라더니, 《일정변경 불가능》이니 하는 구실을 내걸고 《키 리콜》,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끝내는 것까지 사시, 이런 침략책들을 전면적 침략무력을 끌어들이지 않았을지라도 공헌하고 돌아앉아 핵추진잠수함을 비롯한 핵타격수단들을 남조선에 투입한 사실 그리고 정상적이며 자주적인 권리 행사인 우리 전민족의 로케트발사훈련을 《도발》이니, 《위협》이니 하고 걸고드는 것도 조선반도의 군사적대결상태를 극도로 격화시켜 북남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기 위한 흉심에 따른것이다. 미국

의 반동일적인 간섭행위로 하여 지금 북남관계는 또다시 엄청난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미국의 간섭책들에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각성하여야 한다.

미국의 침략전쟁책동으로 하여 지금 북남관계는 대화국면을 계속 이어가느냐 아니면 또다시 파국의 수렁에 빠져드느냐 하는 중대한 갈림길에 놓이게 되었다. 조성된 엄청난 사태를 두고 남조선언론들도 북과 남이 조식스럽게 들어가는 관계개선의 살얼음장우에 미국이라는 강도가 커다란 돌을 던졌다고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있다.

우리 겨레는 우여곡절 끝에 마련된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가 깨어지고 조선반도에 핵전쟁발발의 위기가 조성되는것을 절대로 보고만 있을수 없다. 미국의 악랄한 반동일책들을 우리 민족끼리의 위력한 보검으로 단호히 격파해내고 북남관계를 화해와 단합, 협력의 관계로 전환시켜나가기 한다. 지금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이 북남사이의 대화국면을 대결국면으로 되돌릴수 있는 미국의 위협적인 군사적대결행위를 한목소리로 규탄단죄하면서 반미반전투쟁을 줄기차게 벌여나가고있는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조선반도의 긴장격화의 장본인이며 북남관계개선의 해방군인 미국을 규탄배격하면서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과 평화행위의 새로운 전향적국면을 열어나갈려는것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의지이다.

미국은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물리치고 나라의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해결해나가기려는 조선민족의 의지와 기상을 똑바로 보고 시대착오적인 반동일 간섭행위를 당장 정지시켜야 한다.

리 호 진

주권국가의 당당한 자위권행사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우리 전략군부대들의 로케트발사훈련에 대해 분노없이 입방아를 찧고 있다. 미국무성과 국방성의 패거리들은 그 무슨 《저강도도발》이니,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결의 위반》이니 하는 황당무계한 나발을 늘어놓고있다. 미국의 책동에 높아나는 추종세력들도 《기술적》으로 이루어진 《비정상적인 군사행동》이니, 《심대한 위협을 주는 도발》이니 하며 시비질을 하고 있다. 우리를 걸고들지 못해 안달이 나 하던자들이 마치 가늘은 물분토 미친듯이 헤덕비며 《도발》이라고 생억지를 부리고있으니 그야말로 경악을 금할수 없다.

지난 2월 21일부터 3월 4일까지 진행된 우리 전략군부대들의 로케트발사는 철두철미 정상적인 훈련계획에 따른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영광, 우리의 명예, 우리의 영토를 무대로 하여 나라와 민족의 안전과 지역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목적으로서부터 진행된 방어형로케트발사훈련이었다. 자기 영토나 명해에서 이런 훈련을 진행하는것은 세계적으로도 흔히 찾아볼수 있는 일이다. 더구나 과학적인 계산과 철저한 안전대책을 기초하여 진행된 우리의 이번 로케트발사훈련은 주변나라와 지역의 안전과 국제항해질서, 생태환경에 자그마한 영향도 주지 않았다. 우리의 로케트발사훈련은 주권국가의 당당한 자위권행사로 누구도 그에 대해 문제시하거나 시비를 걸수 없다. 내외의 공정한 여론도 우리의 로케트발사가 미국이 벌려놓은 북침합동군사연습에 따른 자위권수호행위의 행동이라고 평가하고있다.

그런데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만은 사태의 본질을 흐리면서 우리에게 《도발》의 감투를 씌우고 고발하고있다. 문제는 지난 시기 미국과 그 추종세력이 우리의 이런 훈련에 대해 도발이 아니라 말해는 사실이다. 우리의 이번 로케트발사훈련에 대해서도 미국정권 대변인은 처음에는 도발로 보지 않겠다고 말했다가 그후 황급히 발언을 수정하는 추태를 부렸다. 이것은 우리의 로케트발사훈련에 대해 어떻게 하나 트집을 잡으려

는 모략군들의 흉심을 잘 보여주고있다. 하다면 미국과 그 추종세력이 우리의 정상적인 로케트발사훈련을 《도발》과 《위협》으로 둔갑시키려고 강짜를 부리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자위권행사를 결코 《키 리콜》,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의 도수를 더욱 높여 조선반도와 주변지역의 정세를 격화시키고 북침야망을 한사코 실현하자는것이다. 최근 우리의 주동적인 조지프 성의있는 노력에 의하여 북남관계개선의 기운이 나타나고있는것도 미국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있다. 반공화국괴담살상을 위한 남조선미국공조가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타산하고있는 미국은 그것을 막고 우리를 어떻게 하나 해치기 위해 하등의 문제로 되지 않는 로케트발사훈련을 무시막지하게 걸고들며 대결광기를 부리고있는것이다.

우리 공화국의 주권국가로서의 당당한 자위권 행사훈련까지 터무니없는 꾀변과 남조선적리리료 험담으로 긴장을 고조시키고 북과 남의 화해와 단합을 가로막는 미국의 망둥이아발로 엄청난 도발이며 고의적인 평화파괴행위가 아닐수 없다. 지금 내외호전광들은 우리의 로케트발사훈련에 대해 미국과 그 반대편에서 지시시설과파를 목적으로 하는 정밀유도폭탄을 비롯한 최신무기들이 동원된 정전연습장면을 공개하겠다고 떠들며 우리를 위협하며 하고있다. 하지만 그것은 조스만을 자아내는 어리석은 망둥이이다. 원썬들의 그 어떤 최신정전장비도 핵추진형명함군의 무자비한 타격앞에서는 파괴체력이 불타고있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이 아무리 악행을 동무켜 우리를 위협하며 해도 반공화국적대행위가 계속되는 한 우리의 자위적국방력강화를 위한 노력은 더욱 강화될것이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은 우리의 정정당당한 로케트발사훈련을 걸고들며 사태를 양자화하는것이 가장중요는 아무것도 없으며 양당에 제반등을 찍는 도끼가 뿔뿔이라는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심 철 영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우리 전략군부대들의 로케트발사훈련에 대해 분노없이 입방아를 찧고 있다. 미국무성과 국방성의 패거리들은 그 무슨 《저강도도발》이니,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결의 위반》이니 하는 황당무계한 나발을 늘어놓고있다. 미국의 책동에 높아나는 추종세력들도 《기술적》으로 이루어진 《비정상적인 군사행동》이니, 《심대한 위협을 주는 도발》이니 하며 시비질을 하고 있다. 우리를 걸고들지 못해 안달이 나 하던자들이 마치 가늘은 물분토 미친듯이 헤덕비며 《도발》이라고 생억지를 부리고있으니 그야말로 경악을 금할수 없다.

지난 2월 24일 미국이 남조선에서 내외의 한결같은 반대규탄에도 불구하고 방대한 병력과 최신정전장비를 동원하여 벌려놓은 《키 리콜》,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이 위협천만한 양상을 띠고 본격화되고있다.

미국이 이번 전진행위를 《방어 훈련》으로, 《년례적인》으로 둔갑시키고있지만 그런 벨벳스러운 수작에 속아넘어갈 사람은 없다. 이미 그 정체가 날날이 폭로된 《키 리콜》,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은 철두철미 북침핵선제공격연습으로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고 지역정세를 극도로 긴장시키는 근본요인이다.

지금 미국이 《키 리콜》, 《독수리》합동군사연습에 모험적인 북침전쟁장비들을 《맞출형적 전략》과 《공동군사발대비계획》을 적용하고있는 사실은 이 연습의 침략성격을 뚜렷이 드러내고있다.

알려진바와 같이 지난해 10월 미국과 남조선당국은 우리에게 대미 핵선제타격을 노린 《맞출형적 전략》이라는것에 정식 서명하였다.

《맞출형적 전략》은 그 누구의 《핵사용정후》가 조급이라도 보일 경우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군사적력들을 동원하여 선제 타격을 가한다는 무모한 핵전쟁 각본이다.

그에 대한 서명날을이후 초전

미국이 이번 전진행위를 《방어 훈련》으로, 《년례적인》으로 둔갑시키고있지만 그런 벨벳스러운 수작에 속아넘어갈 사람은 없다. 이미 그 정체가 날날이 폭로된 《키 리콜》,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은 철두철미 북침핵선제공격연습으로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고 지역정세를 극도로 긴장시키는 근본요인이다.

지금 미국이 《키 리콜》, 《독수리》합동군사연습에 모험적인 북침전쟁장비들을 《맞출형적 전략》과 《공동군사발대비계획》을 적용하고있는 사실은 이 연습의 침략성격을 뚜렷이 드러내고있다.

알려진바와 같이 지난해 10월 미국과 남조선당국은 우리에게 대미 핵선제타격을 노린 《맞출형적 전략》이라는것에 정식 서명하였다.

《맞출형적 전략》은 그 누구의 《핵사용정후》가 조급이라도 보일 경우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군사적력들을 동원하여 선제 타격을 가한다는 무모한 핵전쟁 각본이다.

그에 대한 서명날을이후 초전

미국이 이번 전진행위를 《방어 훈련》으로, 《년례적인》으로 둔갑시키고있지만 그런 벨벳스러운 수작에 속아넘어갈 사람은 없다. 이미 그 정체가 날날이 폭로된 《키 리콜》,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은 철두철미 북침핵선제공격연습으로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고 지역정세를 극도로 긴장시키는 근본요인이다.

지금 미국이 《키 리콜》, 《독수리》합동군사연습에 모험적인 북침전쟁장비들을 《맞출형적 전략》과 《공동군사발대비계획》을 적용하고있는 사실은 이 연습의 침략성격을 뚜렷이 드러내고있다.

알려진바와 같이 지난해 10월 미국과 남조선당국은 우리에게 대미 핵선제타격을 노린 《맞출형적 전략》이라는것에 정식 서명하였다.

《맞출형적 전략》은 그 누구의 《핵사용정후》가 조급이라도 보일 경우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군사적력들을 동원하여 선제 타격을 가한다는 무모한 핵전쟁 각본이다.

그에 대한 서명날을이후 초전

미국이 이번 전진행위를 《방어 훈련》으로, 《년례적인》으로 둔갑시키고있지만 그런 벨벳스러운 수작에 속아넘어갈 사람은 없다. 이미 그 정체가 날날이 폭로된 《키 리콜》,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은 철두철미 북침핵선제공격연습으로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고 지역정세를 극도로 긴장시키는 근본요인이다.

지금 미국이 《키 리콜》, 《독수리》합동군사연습에 모험적인 북침전쟁장비들을 《맞출형적 전략》과 《공동군사발대비계획》을 적용하고있는 사실은 이 연습의 침략성격을 뚜렷이 드러내고있다.

알려진바와 같이 지난해 10월 미국과 남조선당국은 우리에게 대미 핵선제타격을 노린 《맞출형적 전략》이라는것에 정식 서명하였다.

《맞출형적 전략》은 그 누구의 《핵사용정후》가 조급이라도 보일 경우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군사적력들을 동원하여 선제 타격을 가한다는 무모한 핵전쟁 각본이다.

그에 대한 서명날을이후 초전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침략무력증강책동

최근 미국이 남조선에 대한 무력증강행위에 전례없이 열을 올리면서 북침기도를 날로 로골화하고있다. 우리를 적대시하며 북침핵전쟁행위를 저지하려는 미국의 흉심은 미군부가 남조선간첩 미군에 대한 감추어놓지 않는다는 공시립장을 발표하면서 더욱 명백히 드러나고있다. 미국정권은 최근 고위인물은 얼마전 현재 추진중이 있는 미군부에 대한 감추어놓지 않는다는 공시립장을 발표하면서 더욱 명백히 드러나고있다. 미국정권은 최근 고위인물은 얼마전 현재 추진중이 있는 미군부에 대한 감추어놓지 않는다는 공시립장을 발표하면서 더욱 명백히 드러나고있다. 미국정권은 최근 고위인물은 얼마전 현재 추진중이 있는 미군부에 대한 감추어놓지 않는다는 공시립장을 발표하면서 더욱 명백히 드러나고있다.

최근 미국이 남조선에 대한 무력증강행위에 전례없이 열을 올리면서 북침기도를 날로 로골화하고있다. 우리를 적대시하며 북침핵전쟁행위를 저지하려는 미국의 흉심은 미군부가 남조선간첩 미군에 대한 감추어놓지 않는다는 공시립장을 발표하면서 더욱 명백히 드러나고있다. 미국정권은 최근 고위인물은 얼마전 현재 추진중이 있는 미군부에 대한 감추어놓지 않는다는 공시립장을 발표하면서 더욱 명백히 드러나고있다. 미국정권은 최근 고위인물은 얼마전 현재 추진중이 있는 미군부에 대한 감추어놓지 않는다는 공시립장을 발표하면서 더욱 명백히 드러나고있다.

최근 미국이 남조선에 대한 무력증강행위에 전례없이 열을 올리면서 북침기도를 날로 로골화하고있다. 우리를 적대시하며 북침핵전쟁행위를 저지하려는 미국의 흉심은 미군부가 남조선간첩 미군에 대한 감추어놓지 않는다는 공시립장을 발표하면서 더욱 명백히 드러나고있다. 미국정권은 최근 고위인물은 얼마전 현재 추진중이 있는 미군부에 대한 감추어놓지 않는다는 공시립장을 발표하면서 더욱 명백히 드러나고있다.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기 위한 불장난

이 하나의 사실만으로도 《방어》의 간판을 단 《키 리콜》,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의 도발적 성격과 침략적정체를 잘 알수 있다.

《공동군사발대비계획》 역시 미제침략군이 북남사이의 사소한 우발적충동에 개입하여 그것을 전면전으로 확대하는것을 골자로 하는것으로서 조선반도에서 어떻게 하나 북침전쟁을 도발하고 전조성을 띠고있으며 미국의 조악한 속심을 드러내보여주고있다.

지금 남조선으로서는 미국의 최신정전장비들이 대대적으로 쏟아져들어오는 가운데 북침을 가할만한 각종 훈련들이 발광적으로 벌어지고있다.

스처치남수 없는것은 미제가 그 무슨 《평양점령》작전을 최단

이 하나의 사실만으로도 《방어》의 간판을 단 《키 리콜》,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의 도발적 성격과 침략적정체를 잘 알수 있다.

《공동군사발대비계획》 역시 미제침략군이 북남사이의 사소한 우발적충동에 개입하여 그것을 전면전으로 확대하는것을 골자로 하는것으로서 조선반도에서 어떻게 하나 북침전쟁을 도발하고 전조성을 띠고있으며 미국의 조악한 속심을 드러내보여주고있다.

지금 남조선으로서는 미국의 최신정전장비들이 대대적으로 쏟아져들어오는 가운데 북침을 가할만한 각종 훈련들이 발광적으로 벌어지고있다.

스처치남수 없는것은 미제가 그 무슨 《평양점령》작전을 최단

이 하나의 사실만으로도 《방어》의 간판을 단 《키 리콜》,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의 도발적 성격과 침략적정체를 잘 알수 있다.

《공동군사발대비계획》 역시 미제침략군이 북남사이의 사소한 우발적충동에 개입하여 그것을 전면전으로 확대하는것을 골자로 하는것으로서 조선반도에서 어떻게 하나 북침전쟁을 도발하고 전조성을 띠고있으며 미국의 조악한 속심을 드러내보여주고있다.

지금 남조선으로서는 미국의 최신정전장비들이 대대적으로 쏟아져들어오는 가운데 북침을 가할만한 각종 훈련들이 발광적으로 벌어지고있다.

스처치남수 없는것은 미제가 그 무슨 《평양점령》작전을 최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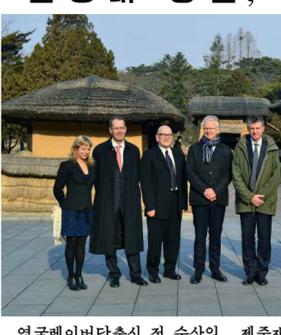
이 하나의 사실만으로도 《방어》의 간판을 단 《키 리콜》,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의 도발적 성격과 침략적정체를 잘 알수 있다.

《공동군사발대비계획》 역시 미제침략군이 북남사이의 사소한 우발적충동에 개입하여 그것을 전면전으로 확대하는것을 골자로 하는것으로서 조선반도에서 어떻게 하나 북침전쟁을 도발하고 전조성을 띠고있으며 미국의 조악한 속심을 드러내보여주고있다.

지금 남조선으로서는 미국의 최신정전장비들이 대대적으로 쏟아져들어오는 가운데 북침을 가할만한 각종 훈련들이 발광적으로 벌어지고있다.

스처치남수 없는것은 미제가 그 무슨 《평양점령》작전을 최단

유럽의 여러 정당출신 정치인대표단 만경대 방문, 여러곳 참관



영국레이버당출신 전 수상인 데이비드 캐머런이 만경대 방문, 여러곳 참관

정치인대표단이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유서깊은 만경대교향집을 찾은 손님들은 추운 겨울이 초가집에서 탄생하시어 어린시절부터 혁명의 끈을 끼우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별칭의 생애에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소중히 보존되어있는 사적물들을 주의 깊게 돌아보았다.

그들은 만경대옛집방문을 기념하여 사진을 찍었다.

대표단은 또한 대포성종향대교육사살림집, 조국방랑전쟁승리 기념관, 미림승마구락부, 만수물놀이장 등을 참관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최고인민회의 제 13기 대의원선거를 앞두고 온 나라가 명절처럼 흥성이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 당이 펼친 인민중심, 인민사랑의 정치와 담을 어머니똥으로 믿고 따르는 인민들의 뜨거운 충정이 하나로 되어 당과 인민대중의 혈연이 늙대가 새로운 높은 경지에 올라섰습니다.》

선거자정부에서 자기 이름과 친지들의 이름을 찾아보며 자리를 못 뜨는것은 공화국공민이 되어 선거에 참가하는 애들은 청년들만이 아니다. 수십년세월 인민주권을 반석같이 다지며 투쟁한 수령님과 장군님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후보자로 높이 추대한 감격의 사연을 안고있는 백발의 로인들도 보인다.

최고인민회의 제 13기 대의원선거를 위한 제 286호 제 5호 분부에서 선거에 참가하게 될 운산군의 한 주민은 경애하는 원수님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후보자로 높이 추대하는 영광을 제 1 제 11호 백두산선거구의 선거자들이 정말 부럽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리 혁명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고 처음으로 실시하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라고 생각하니 저 희들도 정말 가슴뜨겁습니다. 비록 수고와 머리 떨어진 곳의 선거이지만 선거에 참가하는 우리들의 마음은 경애하는 원수님을 추종하는 정열로 뜨겁게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 충정의 향표를! 온 나라 인민이 바로 이런 마

인민의 마음 선거장으로 굽이쳐간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은혜로운 사랑속에서 우리는 지난해에 꿈에도 상상할수 없었던 행복과 영광을 만안고 이번 선거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80고령의 나이이지만 마음은 꼭 첫 선거에 참가하는 기분입니다. 오늘이 이 행복을 안겨주시고 더욱 성장한 미래를 펼쳐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 감사의 큰절을 드리겠습니다.》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선거를 한다. 그때의 경쟁은 서로 다르다. 매일에 대한 희망과 기대, 부정행위와 기만에 대한 분노, 씌어빠진 선거제도와 정치풍토에 대한 불만... 그러나 선거의 날을 기다리는 원수님께서 마련하여주신 영광

의 경행사장에 나 어떤 자식들을 소년 단대표로 떠나보내

우리 인민의 가슴가슴에는 절세위인을 높이 모시어 가슴부풀게 받아안는 행복과 찬란한 미래에 대한 략안이 가득차 있다.

그 바탕에 놓여있는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끝없이 빛내어주시는 우리의 혁명주권이야말로 인민의 모든 꿈과 리상을 눈앞의 현실로 꽃피우시려는 절대적인 믿음이다.

시대의 기쁨기쁨창조물로 일떠선 인민의 문화휴식터 문수물놀이장과 미림승마구락부, 마식령스키장에서 로동당면세물시장으로 뒤틀린 사람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마련하여주신 영광

우리 인민의 가슴가슴에는 절세위인을 높이 모시어 가슴부풀게 받아안는 행복과 찬란한 미래에 대한 략안이 가득차 있다.

그 바탕에 놓여있는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끝없이 빛내어주시는 우리의 혁명주권이야말로 인민의 모든 꿈과 리상을 눈앞의 현실로 꽃피우시려는 절대적인 믿음이다.

시대의 기쁨기쁨창조물로 일떠선 인민의 문화휴식터 문수물놀이장과 미림승마구락부, 마식령스키장에서 로동당면세물시장으로 뒤틀린 사람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마련하여주신 영광

우리 인민의 가슴가슴에는 절세위인을 높이 모시어 가슴부풀게 받아안는 행복과 찬란한 미래에 대한 략안이 가득차 있다.

그 바탕에 놓여있는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끝없이 빛내어주시는 우리의 혁명주권이야말로 인민의 모든 꿈과 리상을 눈앞의 현실로 꽃피우시려는 절대적인 믿음이다.

시대의 기쁨기쁨창조물로 일떠선 인민의 문화휴식터 문수물놀이장과 미림승마구락부, 마식령스키장에서 로동당면세물시장으로 뒤틀린 사람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마련하여주신 영광

독자의 필지

저는 황해남도 신원군 백우리에 살고있는 특유영에 근무합니다. 펜을 든 내게 권에는 어머니 그 목소린 한가정에 울려도 우리 당 그 목소린 온 나라에 울려나오는 노래의 구절이 절절히 들려옵니다.

노래 《어머님의 목소리》를 마음속으로 한구절한구절 부를수록 저를 위해 뜨거운 지성을 바치고있는 군당책임일꾼을 비롯한 군당일꾼들의 모습이 눈앞에 떠올라 눈물이 젖어드는것을 어쩔수 없습니다.

정명 잊을수 없습니다.

지난 여러해동안 군당책임일꾼을 비롯한 군의 일꾼들은 제가 생활에서 사소한 불편이라도 있을새라 늘 마음속이 저의 가정을 친부모의 심정으로 따듯이

당의 품은 어머니 품

돌바꾸었습니다.

영애군인들은 우리 당에서 아끼고 내세워주는 사람들입니다. 변함없이 혁명의 꽃을 계속 피워가야 한다고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고 잠시간을 하여 저의 집에도 자주 찾아와 추울새라 따올새라 원심을 쓰는 그들의 모습은 진정 친부모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명칭만, 휴식날에도 저의 집을 찾아와 새로 나온 출판물을 읽어주고 건강해야 혁명의 꽃을 활짝 피워갈수 있다고 영양식품이며 보약제들도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영애군인들은 언제나 락친정같이 생활해야 한다고 하거나 자기 가정의 TV수상기도 가져다주며 당을 만드는 한길로 끝마르 길어가도록 뜨거운 마음

당 의 품 은 어 머 니 품

돌바꾸었습니다.

영애군인들은 우리 당에서 아끼고 내세워주는 사람들입니다. 변함없이 혁명의 꽃을 계속 피워가야 한다고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고 잠시간을 하여 저의 집에도 자주 찾아와 추울새라 따올새라 원심을 쓰는 그들의 모습은 진정 친부모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명칭만, 휴식날에도 저의 집을 찾아와 새로 나온 출판물을 읽어주고 건강해야 혁명의 꽃을 활짝 피워갈수 있다고 영양식품이며 보약제들도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영애군인들은 언제나 락친정같이 생활해야 한다고 하거나 자기 가정의 TV수상기도 가져다주며 당을 만드는 한길로 끝마르 길어가도록 뜨거운 마음

당 의 품 은 어 머 니 품

돌바꾸었습니다.

영애군인들은 우리 당에서 아끼고 내세워주는 사람들입니다. 변함없이 혁명의 꽃을 계속 피워가야 한다고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고 잠시간을 하여 저의 집에도 자주 찾아와 추울새라 따올새라 원심을 쓰는 그들의 모습은 진정 친부모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명칭만, 휴식날에도 저의 집을 찾아와 새로 나온 출판물을 읽어주고 건강해야 혁명의 꽃을 활짝 피워갈수 있다고 영양식품이며 보약제들도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영애군인들은 언제나 락친정같이 생활해야 한다고 하거나 자기 가정의 TV수상기도 가져다주며 당을 만드는 한길로 끝마르 길어가도록 뜨거운 마음



한성의 한표, 애국의 한표를 바쳐 우리의 혁명주권을 더욱 반석같이 다져나갈 굳은 결의에 넘쳐 있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제38호 제 44호분부선거위원회에서- 본사기자 찍음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걸출한 사상리론의 영재

천만국민이 당의 두리에 사상의지적으로 굳게 뭉쳐 역사의 그 어떤 광풍에도 끄떡없이 강성국가건설의 전구마다에서 대비약, 대혁신을 일으키며 승승장구해나가고있는 사회주의조선의 장엄한 모습을 보며 세계는 경탄을 금치 못하고있다.

위대한 사상은 위대한 현실을 낳는다.

사상의 강자, 정신력의 강자들인 우리 군대와 인민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혁명발전의 메시, 매 단계마다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을 창조하며 백전백승의 한걸음도 함도해오신 걸출한 사상리론의 영재이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회세의 정치가, 강철의 평양이시였을뿐 아니라 비범한 사상리론적예지로 우리 혁명과 인민주주의승리의 한걸음도 함도해오신 걸출한 사상리론의 영재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심오하고 백과전서적인 사상리론은 정치, 군사, 경제, 문화분야로부터 세계의 자주화위업을 이끄는 데까지, 혁명의 전도와 관련한 전략적로선으로부터 당면한 정책문제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문제들에 명백한 해답을 주고 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수십

상상에 걸치는 혁명영도의 길에서 마틴히신 고리한 사상리론적 재부들은 새 세계를 밝히는 혁명의 횡보로, 김일성조선의 영원한 승리의 기치로 빛을 뿌리고있다.

자유의롭고 행복한 이 세계의 태양은 바로 위대한 김정일동지이다.

인류의 영원한태양김정일동지! 이 성스러운 부름은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으로 세계가 나아가 갈 길을 환히 밝혀주신 인류의 영원한태양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끝까지 모시고 따르려는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심장의 웨침이다.

그렇다.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오늘도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끝없이 흠모하고 칭송하고있으며 그의 불후의 교린적로작들을 강령적지침으로, 절대적인 진리로 삼고있다.

베닌사회주의당 위원장은 김정일동지께서 김일성주의의 혁명사상을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의 전일적인 체제로 정식화하신것은 인민주주의위업 수행에서 특기할 사변으로 된다. 그이께서는 《주체사상에 대하여》를 비롯한 수많은 로작들을 집필하시어 주석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을 신화발전시키고 종합체계화하시었다. 그이께서는 제국주의자들이 사회주의의 《종말》을 떠들던 지난 세기 말엽 《사회주의

향도하시는 영원한 태양이다. 영원히 암흑이 다시 없을 세계, 비판과 질망이 영영 사라지고 락판과 회망이 차멸되는 세계, 근로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된 세계.

아, 자유롭고 행복한 이 세계의 태양은 바로 위대한 김정일동지이다.

인류의 영원한태양김정일동지! 이 성스러운 부름은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으로 세계가 나아가 갈 길을 환히 밝혀주신 인류의 영원한태양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끝까지 모시고 따르려는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심장의 웨침이다.

그렇다.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오늘도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끝없이 흠모하고 칭송하고있으며 그의 불후의 교린적로작들을 강령적지침으로, 절대적인 진리로 삼고있다.

베닌사회주의당 위원장은 김정일동지께서 김일성주의의 혁명사상을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의 전일적인 체제로 정식화하신것은 인민주주의위업 수행에서 특기할 사변으로 된다. 그이께서는 《주체사상에 대하여》를 비롯한 수많은 로작들을 집필하시어 주석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을 신화발전시키고 종합체계화하시었다. 그이께서는 제국주의자들이 사회주의의 《종말》을 떠들던 지난 세기 말엽 《사회주의

는 과학이[디]를 비롯한 로작들을 편이여 발표하시어 사회주의위업의 진리성과 정당성, 승리의 필연성을 논증하시고 《사상의 힘으로 사회주의위업의 앞길을 밝히고 승리를 담보 해주신 회세의 정치가!》 《현재적인 사상적예지와 비범한 리론활동으로 세계를 밝히고 인류를 이끄신 사상리론의 대가, 영명한 지도자!》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인류가 공인하는 세계의 위인이시다.》

...

창으로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으로 존엄높은 김일성조선을 자주, 자립, 자위의 사상의보루로 강화발전시키고 세계혁명사상리론의 보물고를 풍부히 하신 사상리론의 영재, 정치철로이시다.

세계는 확신하고있다.

백두산에서 위대한 사상과 위업을 빛나게 세발발전시켜나가는 정예한 김정은동지께서 주체사상의 내용을 소개하시었다. 조선의 승리는 확정적이라는 것을.

우리 군대와 인민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혁명의 진두에 놓이 모신 크나큰 영광과 행복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그의 명도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해나갈것이다.

김 철 료

없었던 사상의 힘을 발견한 불세출의 위인!

《사상으로 역사를 개척하신 걸출한 영도자!》 《사상의 힘으로 사회주의위업의 앞길을 밝히고 승리를 담보 해주신 회세의 정치가!》 《현재적인 사상적예지와 비범한 리론활동으로 세계를 밝히고 인류를 이끄신 사상리론의 대가, 영명한 지도자!》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인류가 공인하는 세계의 위인이시다.》

...

창으로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으로 존엄높은 김일성조선을 자주, 자립, 자위의 사상의보루로 강화발전시키고 세계혁명사상리론의 보물고를 풍부히 하신 사상리론의 영재, 정치철로이시다.

세계는 확신하고있다.

백두산에서 위대한 사상과 위업을 빛나게 세발발전시켜나가는 정예한 김정은동지께서 주체사상의 내용을 소개하시었다. 조선의 승리는 확정적이라는 것을.

우리 군대와 인민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혁명의 진두에 놓이 모신 크나큰 영광과 행복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그의 명도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해나갈것이다.

김 철 료

여러 나라 신문 특집

세계적인 기적들을 아아오신 전진적위업의

평양성전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 신문이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과 사진문헌을 모시고 특집하였다.

물론신문 《어트린 쏘닌》은 《인민의 영도자》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글을 게재하였다.

김정일영도자께서는 한평생 인민들속에 계시면서 그들과 고향을 함께 나누시었다. 그이는 조선의 강성국가건설과 세계 자주화위업에 거대한 공헌을 하신 절세의 위인이시다. 그이께서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정력적인 영도로 경제강국건설의 확고한 토대를 마련되였다.

우간다신문 《한 라이즈》는 《조선로동당기》라는 제목의 글에서 우리 당을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어머니당으로,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는 백전백승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신 위대한 장군님의 업적을 칭송하였다.

...

김정일동지께서는 사회주의위업을 쌓으신 가장 큰 업적은 사회주의의 운명을 수호하신것이다. 지난 세기말에 어진 사회주의수호자는 그 별을 찾아부수 없는것이였다.

【조선중앙통신】

김정일 국방위원장께서는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으로 사회주의의 과학성과 진리성, 그 승리의 필연성을 뚜렷히 밝혀주시었다. 또한 선군정치를 전면적으로 확립하고 철저히 구현하시었다.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새로운 양상의 시대를 열어놓으신것이다. 그이께서는 제국주의자들의 반공화국책동을 짓부셔버리시면서 사회주의강성국가 건설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정력적으로 이끄시었다.

《하바루스키 엑스프레스》는 《위대한 선군정쟁》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적었다.

백두산에서 탄생하신 김정일동지께서는 항일대전의 총포성을 자장가로 들으시며 성장하시였으며 조국해방전쟁시기에는 최고사령부장전대령에서 군사를 령하시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어서시절부터 총대를 사령하시였으며 군사에 깊은 조예를 지니고계시었다.

그이께서는 1960년 8월 25일 조선인민군 군위사령부중대 105명당근사단에 선군혁명영도의 첫 자욱을 새기시었다.

세계 진보적인류는 회세의 평양으로서의 김정일동지의 무비의 당량과 배병을 절감하였다.

선군의 기치높이 승승장구하는 조선은 진보적인류를 크게 고무하며 세계 자주화위업을 힘있게 추동하고있다.

《폼소스스카야 브라우다》는 《백두산에서 탄생, 《칼벽의 요새》를 제목으로 글에서 절세위인의 성스러운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였다.

【조선중앙통신】

김정일 국방위원장께서는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으로 사회주의의 과학성과 진리성, 그 승리의 필연성을 뚜렷히 밝혀주시었다. 또한 선군정치를 전면적으로 확립하고 철저히 구현하시었다.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새로운 양상의 시대를 열어놓으신것이다. 그이께서는 제국주의자들의 반공화국책동을 짓부셔버리시면서 사회주의강성국가 건설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정력적으로 이끄시었다.

《하바루스키 엑스프레스》는 《위대한 선군정쟁》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적었다.

백두산에서 탄생하신 김정일동지께서는 항일대전의 총포성을 자장가로 들으시며 성장하시였으며 조국해방전쟁시기에는 최고사령부장전대령에서 군사를 령하시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어서시절부터 총대를 사령하시였으며 군사에 깊은 조예를 지니고계시었다.

그이께서는 1960년 8월 25일 조선인민군 군위사령부중대 105명당근사단에 선군혁명영도의 첫 자욱을 새기시었다.

세계 진보적인류는 회세의 평양으로서의 김정일동지의 무비의 당량과 배병을 절감하였다.

선군의 기치높이 승승장구하는 조선은 진보적인류를 크게 고무하며 세계 자주화위업을 힘있게 추동하고있다.

《폼소스스카야 브라우다》는 《백두산에서 탄생, 《칼벽의 요새》를 제목으로 글에서 절세위인의 성스러운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오스트랄리아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친선문화협회가 2월 20일 미국과 남조선의 《키 리틀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규탄하여 불평을 발했하였다.

불평에는 《미국이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협한다》라는 제목의 글이 여러 차례에 걸쳐 실렸다.

곧 조선반도에서 미군의 전쟁복소기가 또다시 들려들었다. 이 전쟁복소기는 미국과 남조선호전파들이 《년례적인》 군사연습이라고 하는 《키 리틀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의 결과이다.

미국은 저들의 대량살상무기들을 조선반도에 끌어들이고있으며 이로 하여 이 지역에는 극도의 긴장감이 조성되고 평화 위협당하고있다.

미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압살하기 위하여 전략적폭격기들을 조선반도상공에 틀어막고 있다.

《미국이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협한다》 오스트랄리아단체 불평진 발행

여기에 몇가지 사실이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그이 나라와도 군사연습을 진행하지 않으며 자기의 무기를 다른 나라에 주둔시키지도 않았다. 《그런데 어쩌면 조선이 평화의 《위협》으로 되는것인가?》 지난 60년이상 조선반도에서는 정전상태가 지속되고있다.

이들이 핵무기사용을 위한 훈련을 벌려왔다. 이와 함께 핵학공모합들, 잠수함들도 동원하였다. 서방인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조선반도에서 평화의 《위협》하고있다고 떠들어대고있다. 이러한 비난은 부당한것이다.

미국이 한사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인권문제》에 대해 떠들고있는것은 조선이 어서 아태평양지역과 세계를 제패하려는 저들의 정책에 방해로 되게끔 때문이다.

공화국 《인권》모략책동은 미국의 대조선침략정책이 과산에 직면하였다는것을 보여준뿐 아니라, 진보적인류가 바라보는 희망의 등대이다.

미국이 한사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인권문제》에 대해 떠들고있는것은 조선이 어서 아태평양지역과 세계를 제패하려는 저들의 정책에 방해로 되게끔 때문이다.

공화국 《인권》모략책동은 미국의 대조선침략정책이 과산에 직면하였다는것을 보여준뿐 아니라, 진보적인류가 바라보는 희망의 등대이다.

중국전국인민대표대회 제12기 제2차회의 개막

중국전국인민대표대회 제12기 제2차회의가 5일 베이징의 인민대회장에서 개막되었다.

습근평동지를 비롯한 중국의 당과 국가지도간부들, 대표들이 개막회의에 참가하였다.

회의에서는 리쿠강국무원총리가 정부수석보고를 하였다.

그는 보고에서 지난해 경제건설과 사회발전에서 이룩된 성과를 총화하고 올해과업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는 올해에 사회주의경제건설, 정치건설, 문화건설, 사회건설을 적극 추진하고 농업의 현대화와 농촌의 발전을 다그치며 인민생활보장과 개인사업을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생태문명이 이루어진 행복한 삶의 터전을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언급하였다. 국방 및 국제건설문제와 관련하여 그는 새로운 정세하에서 당의 강군목표를 확고히 틀어쥐고

군대의 혁명화, 현대화, 정규화건설을 강화하며 군대의 실전능력을 끊임없이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은 《한나라, 두 제국》 방향을 확고히 관철하며 평안관계를 발전시켜 평화정착전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갈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중국은 대외관계에서 시종일관 평화와 공동번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갈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이런대통령 취임 후나 2월 27일 남부지역에 추동한 해군부대장병들앞에서 연설하며 적들의 그 어떤 공격도 물리칠수 있도록 만단의 준비태세를 갖추게 대해 강조하였다.

그는 이란무장력이 강력한 억

제력을 보유하고있으며 적들의 모험주의적인 도발을 저지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란무장력은 각종 군사연습을 통하여 전투태세를 유지하며 적들에게 자기의 위력을 과시할것이라고 그는 언명하였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 화춘영이 2월 20일 정기기자회견에서 일본정권들의 무분별한 처사를 신랄히 비난하였다.

일본의 일부 정권들이 집권자의 야스구니진자배를 비호하

고 전후 국제질서《개변》과 그 무는 《국제적지위》에 대해 운운하고있는데 대해 언급하고 그는 국제사회의 정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이러한 처사는 그들에게 침략력사를 반성할 의도가 전혀

없다는것을 다시금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것은 또한 일본집권자의 참배행위의 진저목적과 본질을 더욱 똑똑히 알게 하고 아시아이웃나라들과 국제사회가 일본국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가하여 그를 무참히 살해하였다. 1일 가자지대 남부지역에서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인녀성에 사격을 가하여 무참히 살해하였다.

이보다 앞서 2월 28일 가자지대의 동북부지역과 요르단강 서안지역의 베이트 제이트에서 이스라엘군이 항의시위에 나선 팔레스타인들에 대한 탄압소동을 벌리던 끝에 2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가하여 그를 무참히 살해하였다. 1일 가자지대 남부지역에서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인녀성에 사격을 가하여 무참히 살해하였다.

이보다 앞서 2월 28일 가자지대의 동북부지역과 요르단강 서안지역의 베이트 제이트에서 이스라엘군이 항의시위에 나선 팔레스타인들에 대한 탄압소동을 벌리던 끝에 2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여러 나라들 사이의 협조

이란과 카타르가 2월 26일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며 쌍무관계를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공동위원회를 설립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보다 앞서 2월 24일 중국과 인디아는 군사분야에서 교류와 협조를 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

이러나 카타르가 2월 26일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며 쌍무관계를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공동위원회를 설립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보다 앞서 2월 24일 중국과 인디아는 군사분야에서 교류와 협조를 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

이스라엘의 탄압과 살인만행

에집트신문 《알 아흐람》이 1일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탄압만행을 규탄하였다.

최근 이스라엘경찰이 동부구드스에 있는 알 아크사사원에 대한 팔레스타인인들의 출입을 금지시키고 이에 항거해나서는 사람들에게 폭행을 가한것과 관련하여 신문은 이를 용납할수

없다는것을 다시금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것은 또한 일본집권자의 참배행위의 진저목적과 본질을 더욱 똑똑히 알게 하고 아시아이웃나라들과 국제사회가 일본국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가하여 그를 무참히 살해하였다. 1일 가자지대 남부지역에서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인녀성에 사격을 가하여 무참히 살해하였다.

이보다 앞서 2월 28일 가자지대의 동북부지역과 요르단강 서안지역의 베이트 제이트에서 이스라엘군이 항의시위에 나선 팔레스타인들에 대한 탄압소동을 벌리던 끝에 2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경제 침체, 실업자 증대

영국의 금융업체인 스코틀랜드왕실은행이 2월 27일 조사 자료를 인용하여 지난해 4.4분기에서 82억파운드의 리손실을 보았다고 밝혔다.

한편 오스트랄리아의 항공운수업체인 비전회사에서는 지난해 하반년에 손실액이 8370만 달러(A(오스트랄리아달러)에 달하였다고 한다.

일본에서 실업이 의연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있다. 2월 28일 이 나라 총무성은 올해

이러나 카타르가 2월 26일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며 쌍무관계를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공동위원회를 설립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보다 앞서 2월 24일 중국과 인디아는 군사분야에서 교류와 협조를 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

이스라엘의 탄압과 살인만행

에집트신문 《알 아흐람》이 1일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탄압만행을 규탄하였다.

최근 이스라엘경찰이 동부구드스에 있는 알 아크사사원에 대한 팔레스타인인들의 출입을 금지시키고 이에 항거해나서는 사람들에게 폭행을 가한것과 관련하여 신문은 이를 용납할수

없다는것을 다시금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것은 또한 일본집권자의 참배행위의 진저목적과 본질을 더욱 똑똑히 알게 하고 아시아이웃나라들과 국제사회가 일본국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가하여 그를 무참히 살해하였다. 1일 가자지대 남부지역에서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인녀성에 사격을 가하여 무참히 살해하였다.

이보다 앞서 2월 28일 가자지대의 동북부지역과 요르단강 서안지역의 베이트 제이트에서 이스라엘군이 항의시위에 나선 팔레스타인들에 대한 탄압소동을 벌리던 끝에 2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각종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수단의 남부에서 3일 버스과 화물자동차가 정면충돌하여 15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보다 앞서 1일 볼리비아의 라베스에서 다리가 무너져내려 4명이 사망하고 60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일본의 도야마현에서 3일 달린 버스 방향을 잃고 화물자동차를 들이받아 2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같은 날 튀르키예에서도 2건

이러나 카타르가 2월 26일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며 쌍무관계를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공동위원회를 설립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보다 앞서 2월 24일 중국과 인디아는 군사분야에서 교류와 협조를 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

이스라엘의 탄압과 살인만행

에집트신문 《알 아흐람》이 1일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탄압만행을 규탄하였다.

최근 이스라엘경찰이 동부구드스에 있는 알 아크사사원에 대한 팔레스타인인들의 출입을 금지시키고 이에 항거해나서는 사람들에게 폭행을 가한것과 관련하여 신문은 이를 용납할수

없다는것을 다시금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것은 또한 일본집권자의 참배행위의 진저목적과 본질을 더욱 똑똑히 알게 하고 아시아이웃나라들과 국제사회가 일본국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가하여 그를 무참히 살해하였다. 1일 가자지대 남부지역에서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인녀성에 사격을 가하여 무참히 살해하였다.

이보다 앞서 2월 28일 가자지대의 동북부지역과 요르단강 서안지역의 베이트 제이트에서 이스라엘군이 항의시위에 나선 팔레스타인들에 대한 탄압소동을 벌리던 끝에 2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미국의 《인권》라령은 내정간섭과 침략의 구호

최근 미국이 《세계인권보고서》라는 것을 발표하였다. 여기서 미국은 또다시 세계의 근 200개 나라와 지역의 인권상황에 대하여 제멋대로 비난하고 합부로 평가하였다. 반대로 미당국자들이 저들의 인권정책을 평가한것을 보면 황당하기 짝이 없다. 《세계인권보고서》를 발표하는 마당에서 미국무장관 케리는 《현재 미국만큼 인권을 지키면서 노력하는 나라는 없다.》고 회피무 수작을 늘어놓았다.

미지배층은 《자유주의》 《민주주의》의 간판 밑에 국제법도 안중에 없이 세계 각처에서 감행하고있는 인권유린만행과 제 나라의 한심한 인권실태는 당면우에 올려놓았다. 미국이 위대한 《인권옹호》라령을 진실을 외치고 세상의 거꾸로 보는자들만이 체재할수 있는 쉼터이다.

문제는 미국이 체코도 못 셋는 주제에 무엇때문에 해마다 남의 나라를 걸고들며 《인권라령》을 넘벌쳐며 열심히 외워대는가 하는것이다.

미국이 《국제인권선판관》이라고 되는 뜻이 《인권보고서》라는것을 발표하여 다른 나라들을 집요하게 걸고들며 시비중상을 일삼고있는것은 그 나라들의 내정에 간섭하고 침략과 지배를 실현할수 있는 구실과 핑계를 마련하기 위해서이다. 여기에 미국의 년례적인 《인권보고서》발표행위를 반증적목적이 있다.

이러나 카타르가 2월 26일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며 쌍무관계를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공동위원회를 설립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보다 앞서 2월 24일 중국과 인디아는 군사분야에서 교류와 협조를 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

이스라엘의 탄압과 살인만행

에집트신문 《알 아흐람》이 1일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탄압만행을 규탄하였다.

최근 이스라엘경찰이 동부구드스에 있는 알 아크사사원에 대한 팔레스타인인들의 출입을 금지시키고 이에 항거해나서는 사람들에게 폭행을 가한것과 관련하여 신문은 이를 용납할수

없다는것을 다시금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것은 또한 일본집권자의 참배행위의 진저목적과 본질을 더욱 똑똑히 알게 하고 아시아이웃나라들과 국제사회가 일본국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가하여 그를 무참히 살해하였다. 1일 가자지대 남부지역에서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인녀성에 사격을 가하여 무참히 살해하였다.

이보다 앞서 2월 28일 가자지대의 동북부지역과 요르단강 서안지역의 베이트 제이트에서 이스라엘군이 항의시위에 나선 팔레스타인들에 대한 탄압소동을 벌리던 끝에 2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미국에 조선을 압살책동을 규탄

에집트조선친선협회가 미국의 대조선압살책동을 규탄하여 2월 26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국가이며 모든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나라, 진보적인류가 바라보는 희망의 등대이다.

사회적진보와 발전을 위하여

산림조성사업

중국 내몽골자치구에서 생태환경개선을 위한 산림조성사업에 계속 큰 힘을 쏟고있다.

이런무장력은 각종 군사연습을 통하여 전투태세를 유지하며 적들에게 자기의 위력을 과시할것이라고 그는 언명하였다.

국제축구련맹 2014년 20살미만 여자월드컵경기대회 조구성

국제축구련맹 2014년 20살 미만 여자월드컵경기대회 조구성을 위한 추첨식이 1일 카타르의 몬트리올에서 진행되었다.

16개 팀이 4개 조로 나뉘어 진행되는 이번 경기대회에 우

신형투검피해 확대

수리에서 신형투검이 계속 퍼져 인명피해가 확대되고 있다.

2월 27일 이 나라 보건성은 전국적으로 신형투검환자가 59명에 달하였으며 그 중 19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

미국이 《인권》라령은 내정간섭과 침략의 구호

최근 미국이 《세계인권보고서》라는 것을 발표하였다. 여기서 미국은 또다시 세계의 근 200개 나라와 지역의 인권상황에 대하여 제멋대로 비난하고 합부로 평가하였다. 반대로 미당국자들이 저들의 인권정책을 평가한것을 보면 황당하기 짝이 없다. 《세계인권보고서》를 발표하는 마당에서 미국무장관 케리는 《현재 미국만큼 인권을 지키면서 노력하는 나라는 없다.》고 회피무 수작을 늘어놓았다.

미지배층은 《자유주의》 《민주주의》의 간판 밑에 국제법도 안중에 없이 세계 각처에서 감행하고있는 인권유린만행과 제 나라의 한심한 인권실태는 당면우에 올려놓았다. 미국이 위대한 《인권옹호》라령을 진실을 외치고 세상의 거꾸로 보는자들만이 체재할수 있는 쉼터이다.

문제는 미국이 체코도 못 셋는 주제에 무엇때문에 해마다 남의 나라를 걸고들며 《인권라령》을 넘벌쳐며 열심히 외워대는가 하는것이다.

미국이 《국제인권선판관》이라고 되는 뜻이 《인권보고서》라는것을 발표하여 다른 나라들을 집요하게 걸고들며 시비중상을 일삼고있는것은 그 나라들의 내정에 간섭하고 침략과 지배를 실현할수 있는 구실과 핑계를 마련하기 위해서이다. 여기에 미국의 년례적인 《인권보고서》발표행위를 반증적목적이 있다.

미국이 《인권》라령은 내정간섭과 침략의 구호

최근 미국이 《세계인권보고서》라는 것을 발표하였다. 여기서 미국은 또다시 세계의 근 200개 나라와 지역의 인권상황에 대하여 제멋대로 비난하고 합부로 평가하였다. 반대로 미당국자들이 저들의 인권정책을 평가한것을 보면 황당하기 짝이 없다. 《세계인권보고서》를 발표하는 마당에서 미국무장관 케리는 《현재 미국만큼 인권을 지키면서 노력하는 나라는 없다.》고 회피무 수작을 늘어놓았다.

미지배층은 《자유주의》 《민주주의》의 간판 밑에 국제법도 안중에 없이 세계 각처에서 감행하고있는 인권유린만행과 제 나라의 한심한 인권실태는 당면우에 올려놓았다. 미국이 위대한 《인권옹호》라령을 진실을 외치고 세상의 거꾸로 보는자들만이 체재할수 있는 쉼터이다.

문제는 미국이 체코도 못 셋는 주제에 무엇때문에 해마다 남의 나라를 걸고들며 《인권라령》을 넘벌쳐며 열심히 외워대는가 하는것이다.

미국이 《국제인권선판관》이라고 되는 뜻이 《인권보고서》라는것을 발표하여 다른 나라들을 집요하게 걸고들며 시비중상을 일삼고있는것은 그 나라들의 내정에 간섭하고 침략과 지배를 실현할수 있는 구실과 핑계를 마련하기 위해서이다. 여기에 미국의 년례적인 《인권보고서》발표행위를 반증적목적이 있다.